

예수 사랑하심은

A. B. Warner 사 W. B. Bradbury 곡

한국찬송가공회 역



1. 예수 사랑 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2. 나를 사랑 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했어 하늘문을 여시고
3. 내가 연약 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4.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예수 권세 많도다
들어 가게 하시네 날 사랑 하심 날 사랑 하심
낮은 나를 보시네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 하심 성 경에 써 있 네 아 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가족 나눔] '올 한해 감사한 것, 한 가지'

인도자가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나눌 사람을 지목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이렇게 나누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당시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됩니다.

▷ 2023년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 흥 교 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 702번길 13-11(동두천동) / 담임목사: 김원국

추석 명절 가정예배

개 회 사	-----	인 도 자
지금부터 추석 가정(추도)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561장 ‘예수 사랑하심은’ -----	다 같 이
대 표 기도	-----	가 족 중
성 경 봉 독	----- 고린도후서 9장 6~11절 -----	다 같 이
설 교	----- 「거두는 기쁨을 누리려면」 -----	말 은 이
가 족 나눔	----- ‘올 한해 감사한 것 하나’ ---	각 자 돌아가며
주 기도 문	----- [주기도문] -----	다 같 이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고린도후서 9:6~11]

6.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7.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기록된 바 그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은혜의 말씀] ■ 거두는 기쁨을 누리려면~!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후에도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읍시다.

첫째, 심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합니다. 시편 126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는 것’은 씨앗입니다. 씨를 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심는 일은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심는 일은 반드시 때를 따라, 부지런히, 많이 심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적게 심으면 거두는 기쁨은 그만큼 적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말씀과 기도, 착한 일과 구제의 씨를 많이 심읍시다. 주님은 우리 가족이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자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때 억지로 하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곧 바르게 심는 것이고, 자원하여 심을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하게 만들고 작은 결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꼭 자원함으로 합시다.

셋째, 넉넉히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씨를 자원하여 즐겁게 심는 사람은 점점 넉넉하게 되고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심지 않는 사람은 씨도 먹을 양식도 없이 점점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 서로 서로 나누며 삽시다. 주님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심고 가꾸어 올해를 마무리할 때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는 때지만, 우리 가족은 부지런히 씨를 심는 자가 됩니다.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며 더 많이 나누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